

호남고속철 경유 개항 10년만에 무안공항 날개 편다

2단계 노선 이달중 발표
지역정기권 "경유노선 유력"
활주로 연장 등 사업 탄력
전남도 후속대책 마련 나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올해로 개항 10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이 조기에 완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해외노선 확대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선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달아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내용과 더불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발언을 통해 지역정기권은 무안공항 경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154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전년도 이월 불용액 554억원에 철도시설공단 예산 등을 더하면 1100억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항 10년 동안 점

제일로에 빠졌던 무안공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과거 역대 정부 예산안에서 매년 삭감됐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이 새 정부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한 활주로 확장공사와 화물 처리시설 확대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질 경우 동남아시아의 외국 항공사 거점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전진기지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에 따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거점 시설과 벨트 조성,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해 고속철도와 항공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남도와 무안군이 추진해왔던 무안국제공항 주변 항공 복합산업(MRO) 활성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무안공항 주변에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무안군이 국토부에 신청했던 투자선도지구 지정에서 최종 탈락했다. 항공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이나 추진 사업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가 이뤄지면 기반 조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풍부한 먹거리와 다도해를 낀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을 갖춘 전남지역을 찾는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무안공항이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의 역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좌편기자 cki@kwangju.co.kr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흥 남포마을 앞바다 올 첫 굴 채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등 겨울로 접어든 14일, 굴 구이로 유명한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 어장에서 어민들이 올 들어 처음으로 굴을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 제외해야"

농민·농업인단체 간담회
전남도, 정부에 강력 건의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은 또 다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남도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대상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협상을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건의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일 농민·농업인단체·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 FTA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농업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미 FTA 이후 축산물·과일 등 대미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 지난해 수입액은 71억달러를 기록해 수출액 7억달러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대상에 쌀을 포함한 농업·농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농업 분야가 포함될 경우 불합리하게 돼 있는 ▲낙농품 무관세 쿠틀제 폐지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 ▲농산물 관세 철폐 기한 단축 및 즉시

철폐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전담팀을 운영해 정부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8 광주비엔날레 주제 '상상된 경계들' 11명의 큐레이터 팀 이뤄 7개 전시 꾸린다

2018년 광주비엔날레(2018년 9월 8일~11월 11일)를 이끌어갈 11명의 다수 큐레이터가 확정됐다. 내년 행사는 기존 1인 예술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이들 11명의 큐레이터들이 1~3명씩 팀을 이뤄 7개의 전시를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4일 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큐레이터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 큐레이터를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6면> 큐레이터들은 지난 9월 주제어로 제시

됐던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개발, 냉전, 분단, 난민 등 인류 근현대사를 회고하고 미래적 상상력을 도출하는 전시를 꾸리게 된다. 또 한반도의 분단과 경계가 낡은 현 상황을 살펴보는 대규모 조선헌화 전시도 눈길을 끈다.

전시 장소는 당초 예정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광주비에안레 전시관도 함께 활용하며, 비엔날레의 대동과 관계있는 '오일 정선'을 상징하는 공간 등 광주 시내 곳곳을 염두에 두고 리

서치를 진행중이다.

이날 선정된 큐레이터는 클라라 김(Clara Kim)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틴 Y. 김(Christine Y. Kim)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리타 곤잘레스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그리티야 가위왕(Gridthiya Gawee-wong) 짐 톰슨 아트센터 예술감독, 정연심 홍익대학교 부교수, 이완 쿤(Yee-wan Koon) 홍콩대학교 부교수, 데이비드 테(David Teh) 싱가포르국립대학 부

교수,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겸 작가, 김민석 독립큐레이터 겸 공간 힘 아카이비스트, 김성우 아마도예술공간 큐레이터, 백종욱 독립큐레이터 겸 미술 생태연구소 소장 등 11명이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총괄 큐레이터로 11명 큐레이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대표이사는 "총괄 큐레이터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보다 여러개의 첩타가 모여 책이 만들어지듯, 각각의 큐레이터들이 주제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큐레이터들이 예산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kemik@kwangju.co.kr

사람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2018년 5월 18일(금)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히로시마) 직항 전세기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하계 [10. 13(금)~10. 27(금)] 무안(18:20)~기타큐슈(19:30)/기타큐슈(20:00)~무안(21:20)
동계 [10. 29(일)~03. 30(금)] 무안(18:00)~기타큐슈(19:10)/기타큐슈(19:40)~무안(21:00)

항공 3일
북 규슈 온천펜션 **499,000원** ~
북 규슈 **549,000원** ~
야마구치 **559,000원** ~

항공 4일
북 규슈 **749,000원** ~
야마구치 **769,000원** ~

다낭·후에·호이안 직항 전세기

2017. 11. 17(금) ~ 2018.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다낭(10:40) / 다낭(14:40)~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다낭(00:10) /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핫스프링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99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노팁·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출발) **94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 다낭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